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설 · 연중 제5주일
제33권 11호(다해) 2013·2·10

[묵상]



천사들 찬양 속에 세상을 향해 친히 강복하시는 그리스도
<한스 메링, 15c, 벨기에 왕립박물관>

나는 어부다.
낚시에 관한 한 내가 제일이다.
그러나 때론 한 마리도 못 낚을 때가 있다.
오늘이 그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신다.
수많은 고기가 낚였다.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렵다.
나보다 낚시를 잘하시는 그 분과
내 삶이 엮이는 것이 두려워
나를 떠나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이르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나는 거절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낀다.

나의 속됨을 그분의 거룩함으로 채워
나를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써 주신다니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길 용기가 생긴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김재순 아가다
특전미사	(생) 이재승 미카엘 & 서경희 마리아 & 지호 요안나 가정, 정호순 테레사, 이윤조 글라라, 이효희 마리아 & 신중철, 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토마스,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설 주 일 아침미사 & 낮 미사	(연) 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는 설 합동 위령미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민수기(Numbers) 6,22-27

화답송 ①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우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②
○당신이 그들을 끌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③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④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⑤

제 2독서 야고보서(James) 12,31-13

복 음 ① 알렐루야.

환호송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②

복 음 루카(Luke) 12,35-40

영성체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As We Gather	248	248
봉헌	I Lift Your Name	257	267
성체	Shout to the Lord	289	287
파견	352	214	18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2부 교회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 말씀과 성소들

라) 하느님 말씀과 평신도

이 말씀은 특히 “현세사에 대한 관여와 지상 활동의 참여”
282)로 성령에 따른 삶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고유한 성화
성소를 살아가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들
은 합법적인 목자들의 인도에 따라 교회 안에서 읽고 연구된
하느님의 말씀과 친숙해짐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도록
양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의 위대한 영성들로부터 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
니다. 가능하다면 교구들이 특별한 교회적 책임 아래에서 이
러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 하느님 말씀, 혼인과 가정

85). 또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하느님의 말씀과 혼인과
그리스도인 가정 사이의 관계를 강조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실상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인 가정
의 참된 정체를, 곧 주님의 계획 안에서 가정은 무엇이고 무엇
이 되어야 하는지를 밝혀 줍니다.”

따라서 혼인의 기원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창세
2,24 참조)과 예수님께서 혼인을 당신 나라의 제도를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키고자 하심으로(마태 19,4-8 참조) 인간 본
성 안에 본래적으로 들어 있는 것을 성사로 들어 높이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사 거행에서 남녀는
상호적인 자기 증여라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결합이라는
신비의 표지인(에페 5,31-32참조) ‘한 몸’이 된다는 예언적 말
을 발설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성은, 오늘날 이 제도가 많은 측면
들에서 현대의 사고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무질서한 애정이 확산되고 인간의 육체
와 성적 차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고 방식들이 생겨나는 상황
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고 충실하고 상
호적이며 풍요로운 사랑으로 부름 받은 인간의 본래적 선성을
재천명합니다.

혼인의 위대한 신비로부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나옵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의 의미를 전수하고 증언하는 것
은 참된 부성과 모성에 속합니다. 가정생활의 충실성과 단일
성을 통하여 부부는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
하는 이들이 됩니다. <◆계속>

세모(歲暮), 세시(歲時) 풍속과 그리스도교 신앙

정월 초하루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릴 적 어른들이 하였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선달 그믐날 밤을 지새우지 않고 일찍 잠들면 새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썹이 새하해진다는 것입니다. 도교에서 유래한 우리 선조들의 전통에 따르면, 부엌에 머무는 집안 수호신인 조왕신(부뚜막신)이 선달 스무 나흘날 밤하늘에 올라 옥황상제에게 한 해 동안 그 집안의 상황을 보고하고, 선달 그믐날 밤에 한 해의 심판과 새해 길흉화복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민간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이 마지막 날, 온 집 안 구석구석에 촛불을 밝혀놓고 조왕신이 돌아오는 것을 경건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밤새워 깨어있으라는 권고입니다.

조왕신을 기다리던 세밑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일 년 간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며, 보다 나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간신앙이 대부분 현세구복과 관련되었는데, 조왕신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해를 흥청망청 마무리하는 망년의 개념보다는 지나가는 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가올 새해를 생산적으로 준비하려는 건전한 풍속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상거래 관계에서도 채권자는 그믐날 자정 이전까지만 채무를 요구하고, 이후 정월 보름까지는 빚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게 한 시름 돌릴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제공하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는 복이 분명 현세구복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리시겠다던 복은 오늘 제2독서 말씀에서

처럼, 우리가 살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얻게 되는 생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을 얻은 사람은 오늘 복음 말씀처럼,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위하여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고 깨어 기다리다가 곧바로 문을 열어드리는 종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복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천상 잔치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주변에서 망년이라는 말 대신에 송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저 한 해를 잊자고 흥청망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를 잘 마무리해야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듯이, 현세의 삶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잘 살아야 내세의 영원한 행복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올 계사년에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박희자 마리아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 2월13일(수)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사순시기'는 성 목요일(3월28일)의 주님탄생 미사전까지이며, 예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회개와 기도의 시기입니다.
- ▷ 금식·금육: 재의 수요일(2월13일), 성 금요일(3월29일)
- ▷ 금식 대상: 만 18세~60세(한 끼 금식)
- ▷ 금육: 매주 금요일 / 금육 대상: 만 14세부터
- 미사: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2월15일부터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되며, 미사후 '십자가의 길' 기도가 구역순으로 진행됩니다.

- 재의 수요일후 금요일(2월15일): 토런스 동구역
- 사순 제1주일 금요일(2월22일): 토런스 서구역
- 사순 제2주일 금요일(3월1일): 사순피정(십자가의길없음)
- 사순 제3주일 금요일(3월8일):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15일):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22일): 하버/카슨 구역
- 성 금요일(3월29일): P.V. 구역(오후 3시)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재의 수요일부터 준비됩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봉투는 주님 탄생 성목요일(3월28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새해맞이 나의 신앙다짐' 5행시 40여점 출품, 전시중입니다.

- 전시: 2월16일(토)까지 강당
- 시상: 시상을 위한 추천: 많은 교우들이 직접 보시고 1개작품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 2월17일(주일)

◆ 해설자 / 독서자 교육

- 일시: 오늘 주일(10일) 낮미사후 성전
- 지도: 오마우라 수녀님

◆ 제사년 '설' 합동위령미사

- 일시: 오늘 주일(10일) 오전 7시30분, 오전 11시
- 미사후 신부님과 함께하는 세배와 성모회에서 준비한 새해떡(아침미사), 떡만두국 나누기(낮미사)가 있습니다.

◆ 빈첸시오회 월 정기모임 변경

- 일시: 2월부터 매월 둘째주일 오전 9시30분
- 문의: 박홍통 빈첸시오회 회장 ☎(310)283-5879

◆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

- 일시: 2월14일(목)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중에
- 미사후 강당에서 조출한 환영다과회가 있습니다.
- 문의: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요셉회 특강

- 일시: 2월17일(주일) 정기모임 식사후
- 강의내용: 미국총기사고와 그 예방에 대하여
- 강사: 송종두 요한
- 안나회원들의 참석도 바랍니다.
- 문의: 김대우 비오 요셉회장 ☎(310)920-7647

◆ 성서공부(Lecio Divina)반 모집

- 첫모임 일시: 2월22일(금) 오전 9시30분
- 장소: 강당
- 지도: 본당 수녀님

◆ 성혈봉사자 재교육 및 피정

- 일시: 3월3일(주일), 오후 1시30분
- 대상: 성혈봉사자

◆ 본당 주방용품 반납 및 도네이션 환영합니다

집에 음식을 담아갔던 본당 주방용품이 있으면 신속한 반납을 바랍니다. 혹시 잊고 계시지나 않은지요?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10일(주일): 성모회(전신자들과 떡만두국 나누기) 주일학교(10학년 핫도그 & 칩)
- 2월17일(주일): 하버/카슨 구역(소고기부국 \$3) 주일학교 수업 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윤철	강인모	구자은	국세찬	권오상	김기정	김병조
	김상규	김선제	김종렬	김종문	김철민	남명자	남성철
	모은기	문두현	민기남	박광자	박씨니	박정희	박종열
	방정복	배기엽	배태임	변복순	손준화	송기철	신경훈
	엄정자	오일순	윤석구	윤화경	이남현	이명자	이상석
	이상철	이석진	이영희	이은록	이인두	이인석	이정훈
	장영우	전정일	전정자	주이자	최상만	최현관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1,0150
주일미사헌금: \$2,925							
2차헌금: \$1,409							
성전헌금	강윤철	강인모	구자은	국세찬	권오상	김기정	김병조
	김상규	김선제	김종문	김철민	남명자	남성철	모은기
	민기남	박씨니	박정희	방정복	변복순	신경훈	엄정자
	윤화경	이남현	이명자	이상석	이상철	이석진	이영희
	이은록	이인석	장영우	전정일	최상만	최현관	영희가보라
	영희가보라						합계: \$2,610
감사헌금: 손준화 권영환							
본당 새해달력광고후원: \$900							

공지사항

소공동체 2월 반모임 안내

◆ 2주간의 기도체험 피정

- 일정 : 2월17일(주일)~3월2일(토)
- 대상 : 기도안에서 하느님 체험과 이나시오영성에 따른 기도체험을 원하는 분
- 피정지도 : 이상훈 요한 신부님(LA대교구 St.제임스성당)
- 첫모임(장소) : 17일(주일) 오후 1시15분 본당 강당
- 신청서 : 사무실

◆ 중등부(주일학교) 사순피정

- 일시 : 3월8일(금)~9일(토) 장소 백삼위성당
- 대상 : 6학년~8학년 참가비 없음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15일(금)~17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피정의집(테메클라)
- 대상 : 9학년~12학년 참가비 \$60(3/1일 이후는 \$80)
- 준비물 : 성경, 묵주, 미사헌금,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Deposit \$40 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2월28일까지 선착순 40명(인원제한)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 SAT II한국어 시험 준비반 모집...현재 수업중

- 대상 : 현재 8학년~11학년
- 신청 : 한국학교 교사실(2층) 상담 및 반 배정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중 :
* 등록금 : 첫째아이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교장 ☎(310)464-7490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강순복 요세피나 213-675-0498 2/16/(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2/9(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2/8(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대우 비오 378-8763 2/16(토)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김세중 벤자민 310-4351 2/16(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우영희 엘리사벳 691-6087 2/8(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오창애 안나 974-2857 2/15(금) 십자가의길 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데레사 634-6923 2/14(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송 미카엘 540-9032 2/16(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박정희 마리아 800-3709 2/9(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쥘마 818-640-3656	조소영 수산나 804-7645 2/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2/8(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541-4760 2/8(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2/8(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금명영 세실리아 617-3568 2/12(화) 오전 10시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남가주 소식

◆ 최대제 신부의 제13기 커피교육

- 일시 : 2월11일(월), 14일(목)
- 수강료 : \$200
- 문의 : LA아그네스 성당 사무실 ☎(323)731-4433

◆ 성서 40주간 모집(성토마스 한인천주교회)

- 일시 : 2월21일(목)부터 40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 방법 : 구약, 신약을 통째로 읽기(강의로 요약정리 됨)
- 신청비 : 구약 \$100, 신약 \$50 (강사료, 교재비, 간식 포함)
- 문의 : 이비비안 (909)538-9650

◆ 영신수련 침묵피정(4박5일)

- 일시 : 2월27일(수)~3월3일(주일) 매리우드 피정센터
- 지도 : 류형렬 신부(예수회)
- 주최 :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CLC)
-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양요안나(909)518-4376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 제21차 세계 병자의 날이 2013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기념일에 알퇴팅의 성모 순례지에서 성대하게 거행될 것입니다. 이 날은 병자들과 의료계 종사자들, 신자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선의를 위한 기도와 나눔 그리고 고통을 봉헌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 받는 형제자매의 얼굴에서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시간”(요한 바오로 2세, 세계 병자의 날 제정에 관한 서한, 1992.5.13., 3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이 날을 맞이하여, 저는 의료 기관이나 가정에서 질병과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고립되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며, 쓸모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생생하고 분명한 표상입니다.”

2. 희망과 은총을 상징하는 장소인 루르드에서부터 알퇴팅 순례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순례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모범적인 인물을 성찰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루카 성인이 들려주는 복음서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특히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일상의 사건들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끝에,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일러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힘을 길어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심신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날마다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병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고통의 상황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고통을 비켜 피하거나 고통에서 도망침으로써가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통하여 성장하며 무한한 사랑으로 고통받으신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고통의 의미를 찾는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3. 여러 교부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에게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서 아담, 곧 죄 때문에 상처 입고 길 잃은 인류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성부의 사랑, 충실하고 영원하며 무한한 그 사랑을 현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한 당신의 ‘신성이라는 옷’을 벗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

님께서 사람들은 똑같이 되시려고 당신의 신적인 ‘조건’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고통에 다가갔고 우리가 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승에까지 내려가셨으며 마침내 우리에게 희망과 빛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4.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신앙의 해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사랑의 봉사를 강화하여 우리가 모두 이웃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교회 역사에서, 병자들이 그들 고통에 담긴 인간적 영적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던 수많은 이들을 생각합니다. “사랑의 학문(scientia amoris)의 전문가”인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엄청난 고통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한 질병 속에서도 “예수님의 수난에 깊이 결합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자 루이지 노바레제는 사목 활동을 통하여, 병자들과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또 그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울 폴레로는 이웃 사랑에 이끌려 지구의 가장 먼 곳도 마다 않고 가서 한센병에 걸린 이들을 돌보는 데에 생애를 바쳤고, 특히 세계 한센병자의 날 제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콜카타의 데레사 복자는 날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였고, 그런 다음 묵주를 손에 들고 거리로 나가 고통 받는 이들, 특히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돌보지 않는’ 사람들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섬겼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수난하시는 당신 아드님을 해골 터의 지고한 희생에 이르기까지 따르신 분으로 두드러집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악과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리라는 희망을 결코 잃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시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음과 사랑에 찬 마음으로 따스하게 받아들일 줄 아십니다.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성모님의 굳은 신뢰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주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확신을 일깨워 줍니다.

5. 끝으로, 저는 가톨릭 의료 기관과 시민 사회 그리고 교구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보건 사목에 종사하는 수도회, 그리고 보건 종사자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모든 인간을 특히 나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사명의 근본적인 측면을 실천합니다.” 저는 제21차 세계 병자의 날을, 알퇴팅에서 공경하는 은총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에 맡겨 드리며, 성모님께서 고통 속에서 위로와 굳건한 희망을 찾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저의 교황 강복을 보내드립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